



##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 ‘인동초’ 향기는 영원히...

###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조문... 불교계 애도문 줄이어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을 추모하는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거 이틀째인 8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임시 빈소를 찾아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인권의 큰 별이었던 김대중 前 대통령이 8월 18일 서거해, 23일 국장(國葬)으로 장례가 엄수됐다.

8월 18일 오후 1시 43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김 前 대통령이 서거하자, 각계각층의 애도가 줄이였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 등이 직접 빈소를 차려진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불교계의 애도문도 줄이였다. 애도문에서 김대중 前 대통령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인동초처럼 이겨낸 민주화의 상징'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권한 대행 인공 스님은 '우리 사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분'으로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는 '불멸의 고통 겪는 남북 동포의 등불이었다'라고 평

가했다.

교계 각 단체의 애도문도 발표됐다. △실천승가회(대표 법안)는 "인동초의 삶을 살다간 이땅의 진정한 지도자"로 △정정승가회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는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민족의 큰 어른" △윤암김성숙 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김 前 대통령은 윤암 김성숙(태허 스님) 선생님과 신민당 동지로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라며 추모했다.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엄수된 김대중 前 대통령 국장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371명으로 장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는 국민장으로 치러진 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장례 때의 1383명보다 1000명 가량 더 많은 숫자다.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맡았고, 부위원장단은 국회 부의장 2명, 선임 대법관, 전 남지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세영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등 7명이 불교계 대표로 참여했다. 영결식에서 치러진 불교의식은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이 주관했다.

김 前 대통령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외환위기에 빠진 한국에 선진금융시스템 등을 도입해 경제를 살리는 한편, 정치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등을 성사시켰다.

故 김 前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보수진영으로부터 '북한 퍼주기'로 비판받기도 했다. 하지만 세게 몇 안 되는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민족화해에 앞장섰다는 대중적 평가는 그를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게 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은 1925년

전라도남도 신안 하의도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김윤식과 어머니 장수금의 4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목포 북교초등학교와 목포상고를 졸업했다. 목포일보 사장 등을 지내다 1963년 목포에서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제7, 8, 13, 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故 박정희 대통령에게 석패했고, 1987년, 1992년 대선에서는 노태우, 김영삼 후보와 겨뤘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1997년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돼 진보세력의 연립이던 여야 정권교체를 이뤘고, 외환위기에선 한국 경제를 건져낸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의 서거에 국민들은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 그가 남긴 화해와 용서의 화두가 한반도를 평화의 꽃으로 가득 채우길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김성우·조동섭 기자

## 한국불교 미래를 열다

### ‘지리산 야단법석’ 사부대중 호응 속에 성료

민족 성지(聖地) 지리산에서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불교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고민했다.

움직이는선원(조실 무비) 등 '민족 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 준비위원회'는 8월 14~18일 지리산 실상사 작은학교에서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법주로 나선 무비 해국 항봉 도입 스님을 비롯해 실상사 재연 스님, 황매암 일장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가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법석에 동참한 재가자는 100여 명이 이르렀다. 특히 참가자 중에는 개신교 목사 등 자신이 불자가 아님을 뽐뽐하게 밝히는 재가자들이 있어, 정법갈구에는 출·재가, 불자·비불자의 구분이 없음을 보여줬다.

첫 법주로 나선 무비 스님은 <금강경> 소의경전 문제를 제기했다. 스님은 "〈금강경〉이 대승보살의 자비실현행을 강조하는 부분이 약하다"며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조계종 소의경전으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법주로 나선 항봉 스님(익산 사자암)은 방장 법어 대필, 선지식 부재, 법거량 소멸, 과잉 해제비 문제 등 한국불교의 폐단을 집중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국선원수좌회를 대표한 세 번째 법주 해국 스님(중주 석종사 금봉

선원장)은 "선방의 문제는 스스로 개선될 것이고, 간화선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이나 간화선사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한국불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도법 스님(움직이는선원 열종)은 행·주·좌·와·어·묵·동·정을 섭수해 수행하는 움직이는선원을 제안했다. 스님은 종정상, 총무원장상 등 스님들부터 상(相)을 버려야 불교가 바로 선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도법 스님 뿐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은 강도 높게 불교에 대한 비판을 퍼부었다. 성역과 같았던 <금강경>과 간화선 등 조계종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주제가 오갔다. 49재를 마흔 아홉 번 지내는 1029재, 천불·만불을 조성해 법당을 불상창고로 만드는 문제 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가자들은 평소 스님에 대해 아쉬웠던 점들을 하소연하듯 쏟아냈다. 승가의 권위와 선방의 신비가 법석에 내용당이쳐져 날브러진 상황에서 몇몇 재가불자는 승가를 외호하는 발언을 해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국불교에 한바탕 사나운 바람을 몰고 왔던 4박5일간의 야단법석은 끝났다. 하지만 안다. 그래도 선방을 지키는 수좌, 포교일선에서 활동 중인 대중, 불교를 외호하는 재가자들이 있어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조동섭 기자

## 지리산 야단법석 지상중계 5~15면

【社告】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 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 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법구경  
영혼이 순수한 이는 즐거운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현대불교 @작리 \* \* \*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창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익시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성물 크기(15x9cm) 규격권 23매  
원도·상량서, 법사·복장익시, 영기전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얼레와일 두리야 전문  
보이차, 각종 차음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

## 社團法人 大乘佛教 本願宗



# 제5대 종정 梵海堂 大和 대종사 추대 · 제5대 부종정 동광 대종사, 법용 대종사 제6대 총무원장 德山堂 衿赫 대종사 및 각 원장 취임 대법회



한국불교의 중추중단으로 거듭나는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은 제5대 종정 梵海堂 大和 대종사, 제 5대 부종정 동광 대종사, 법용대종사, 제6대 총무원장 德山堂 衿赫 대종사 및 각 원장 및 종단 임원진 취임을 계기로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해 정진을 다할 것입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무루 동참하시어 뜻 깊은 법회의 자리가 되도록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9년 9월 9일 (음, 7월 21일) 오전 11시  
장소 : (사)대승불교본원종 총무원 연화정사 천불전  
문의 : 총무원 02)391-4376



- 제5대 종 정 梵海堂 大和 대종사
  - 제5대 부 종 정 동광 대종사, 법용 대종사
  - 제6대 총무원장 德山堂 衿赫 대종사
- 증명 : 무구 대종사,  
고문 : 대월 대종사, 만공 종사  
상임지도위원 : 해운, 해관, 자광, 해공, 현공, 법훈, 정오, 지연  
봉행위원장 : 경산  
봉행위원 : 법성, 해원, 도광, 법성, 지광, 지선

- 임원진
- 원로원 원장 : 대 원  
감찰 원장 : 대 능  
포교 원장 : 대 련  
연수 원장 : 현 담  
문화 원장 : 송 담  
부산경남총무원장 : 지 우  
강원총무원장 : 진 묘  
충북총무원장 : 대 월  
전국신도회부회장 : 성덕화, 청연행
- 종회 의장 : 대 운  
교육 원장 : 무 공  
의전 원장 : 두 산  
염불 원장 : 대 황  
복지 원장 : 대 천  
경북총무원장 : 자 광  
충남총무원장 : 지 천  
전국신도회장 : 대 광